구절초 흐드러진 정읍서 가을 만끽

내일부터 26일까지 구절초 축제 18일 개막식 국내 가수 축하공연 명소 찾아가는 '정원 스탬프 투어' 나무놀이 감성체험 · 먹거리 장터 등

솔숲을 하얗게 물들이는 구절초의 향연, 정읍의 '제18회 구절초 꽃축제'가 14일부터 26일까지 산 내면 구절초지방정원에서 펼쳐진다.

정읍시는 올해는 방문객들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준비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드넓은 정원 곳곳을 누비 며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정원 스탬프 투어' 는 구석구석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는 재미를, '꽃 열차'는 솔숲을 편안하게 여행하는 낭만을 선

또 '꽃멍 정원멍' '나무놀이 감성체험' 등은 바 쁜 일상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온전한 휴식과 치유 의 시간, 심리적 위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눈과 귀를 사로잡을 화려한 공연도 준비됐다.

18일 오후 3시 개막식 축하공연에는 박창근, 장 민호, 김태연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나와 축제 의 열기를 더한다.

꽃밭 야외무대에서는 김영희·정범균(19일), 윤 택(25일),최양락·팽현숙(26일) 부부가 출연하는 '명사 토크 콘서트'가 열려 깊이 있는 이야기와 유



지난해 정읍 '구절초 꽃축제' 기간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솔숲 아래 신비한 구절초의 모습을 담고 있다.

쾌한 웃음을 선사하다.

'정읍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빼놓 을 수 없다. 농특산물 품평회를 통해 엄선된 구절 초 두부김치, 산채비빔밥, 다슬기 칼국수, 정읍 한 우고기 등 지역 특색이 담긴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는 참가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메 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축제의 만족도 를 높이는 데 힘썼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됐다. 축제장 진입도로는 산내면에서 행사장 입구를 거

쳐 제3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일방통행이 시행된 다.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많은 인파가 예상되므 로 여유로운 관람을 원한다면 오전 일찍 방문하거 나 늦은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사진작가가 추천하는 구절 초 꽃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로 자 리잡았다"라며 "올해도 구절초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정읍의 맛, 편리한 교통, 따뜻한 정을 느끼 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동리대상'에 김청만 명고 선정

고창군, 전통 지주식 김 양식업 재개

한빛원전 온배수 보상 소멸에 1년간 중단…43개 어가, 사전준비 한창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 중에 하나인 전북 고창 '동리대상'의 올해 수상자로 김청만 명고가 선정됐다.

한빛원전 온배수 보상 소멸에 따라 중단됐던 고

고창군은 최근 만월어촌계 43개 어가 150여명

을 대상으로 '지주식 김 한정면허 처분'을 완료해

4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지주식 김 양식업이 재

특히 심원면 만돌 일대 어장 면적도 기존 154ha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1623년부터 시작된 전통

연간 물김 600t 생산과 마른김 가공공장 운영

매출을 포함해 총 7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난

고창 지주식 김은 람사르습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김이다. 서해안 최초로 물김 유기수산물 인

해 보상 소멸로 어민들이 생계 위기에 처했다.

증과 미국 유기인증(USDA)도 획득했다.

어업으로 만돌 지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

개된다고 밝혔다.

격화됐다.

에서 200ha로 46ha가 확대됐다.

창의 지주식(재래식) 김 양식업이 1년 여만에 재

(사)동리문화사업회(이사장 신유섭)는 동리대상심 사위원회를 열어 판소리 진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김청만 명고를 '제 35회 동리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리대상은 연창자, 고수, 판소리 연구자 또는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정해 매년 상장 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판소리 고법으로 동리대상을 수상한 것은 제8회 정 철호 명고, 제15회 김성권 명고 이후 세 번째이다.

김청만 명고는 1946년 목포에서 출생해 2007년 보관문화훈장 수상,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부산예 술대학교 한국음악과 대우교수,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 법 보유자 김청만 명고.

2013년국가무형유 산 판소리 고법 보유 자로 지정됐고 80세 를바라보는나이에도 판소리고수로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판소리 고법 하나 로 평생을 살아왔다" 는 김청만 명고는 소 리꾼을 살피고 북으 로 숨결을 이끌어주 는 것이 진짜 고수라

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연과 교육을 아우르며 후학 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 태안, 완도와 함께 국내에서 몇 곳 남지 않은

군은 2024년부터 한빛원전과 만월어촌계 소멸 김 어장을 대체할 신규 한정면허 승인을 위해 수십

하지만 기존 협동양식 어업과 마을어업으로는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수심제한 완화

를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런 노력이 힘입어 지난해 7월 시행령이 개정

됐고 이후 군은 한빛본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전북도로부터 지주식 김 한정면허 승인을 받아 이

처분 이후 만월어촌계에서는 현재 김 그물망 세

척, 김 포자 부착, 김 말목 정비 등 사전 준비가 한

창이며 이달 중순부터 김 양식장 운영을 재개할 예

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수심 제한 등으로 지주식 김 양식 개발이 현실적으

전통 지주식 김 양식지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을 해수부에 건의했다.

달 최종 김 한정면허를 처분했다.

로 불가능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6일 오후 2시 고창 문화의전 당에서 열린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 빛낸 '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

애향봉사장 김성순·농산업경제장 이현주·명예시민의장 조연옥 씨

정읍시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발전에 헌신 한 3명을 '정읍시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애향봉사장 김성순(59·정읍여성의용소방대 장)씨는 지난 20여년간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활 약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온 공로를 인정받았

농산업경제장 이현주(68·참좋은영농조합법인 대표)씨는 3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잡곡류와 지역 농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주도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

조연옥(86·국제예술문화교류협회 부 회장)씨는 2017년부터 평생 수집한 작품 515점과 아카이브 자료 595권을 정읍시

립미술관에 기증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 혀 명예시민의장에 뽑혔다. 시상은 11월 1일 열리는 제31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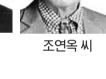
이학수 정읍시장은 "수상자들은 각자 자리에서



김성순 씨



이현주 씨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이라며 "이번 수상이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 고, 정읍을 위한 헌신의 발자취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보강공사 완료

결식 우려 이웃에 점심 제공…최경식 시장, 배식 봉사

남원시가 남원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기능보강사 업을 완료했다.

남원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10일 기능보 강이 완료된 남원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을 방문해 배식 봉사를 진행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 을 가졌다고 밝혔다.

남원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 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급 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능보강 공사를

이번 기능보강 공사는 안전을 위한 전기시설 공 사를 포함하여 협소한 공간 리모델링, 노후 시설 교체, 위생 설비 등을 포함해, 어르신들이 더욱 쾌 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

최경식 남원시장은 "경로식당은 식사에 어려움 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소 중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협약

남원시가 최근 남원교육지원청, 전북동부아동 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원교육지원청은 아동 권리 증진사업, 아동 권리 모니터링 활동, 아동의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고 굿네이버스 전북동부지부는 아동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남원시와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와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아동 참여 체계 구축 ▲아동권리옴부 즈퍼슨 구성·운영 ▲내부정책조정기구 운용 ▲찾 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등을 진행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아동의 권리를 보 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통합적 아동정책을 추진해

정례적으로 아동 권리 교육 운영 방안을 협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노력의 하나 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청소년 진로 직 업체험 박람회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한다.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미래 설계, 전문 가 상담제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 하며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 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욱 견고히 하여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완료한 후 지난달 29일부터 점심을 재개했다.



の境な是を数人子を質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림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첩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버 들 지 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빚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이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